

보험연구원 국제세미나 : 『회계제도 변화와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략』

IFRS 9(금융상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2017년 9월 15일(금)

KPMG 삼성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 김진귀상무이사

Table of Contents

- I. IFRS 9 “금융상품” 개요
- II. 보험사의 IFRS 9 도입 (IFRS 17과의 관계)
- III. 국내 보험사 투자금융상품 현황
- IV. IFRS 9 이 보험사 자산운용에 미치는 영향

I. IFRS 9 “금융상품” 개요

1. IFRS 9 도입 배경

IFRS 9은 '자산의 공정가치(시가) 평가'에 중점을 둔 기준으로

→ 보험업은 '부채의 공정가치(시가) 평가'를 규정한 IFRS 17과 함께 도입해야 보다 유의미함

IFRS 9 도입 취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IAS 39)의 문제점 대두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폭락했음에도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음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충당금이 충분히 설정되지 않음

→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보다 공정가치에 가깝게 변경할 필요성” 제기

보험업과 IFRS 9

보험업은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공정가치 평가해야 기준서 취지에 부합

- IFRS 9과 IFRS 17을 함께 적용해야,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공정가치로 평가됨
- 기준서의 적용시점은 각각 2018년(IFRS 9), 2021년(IFRS 1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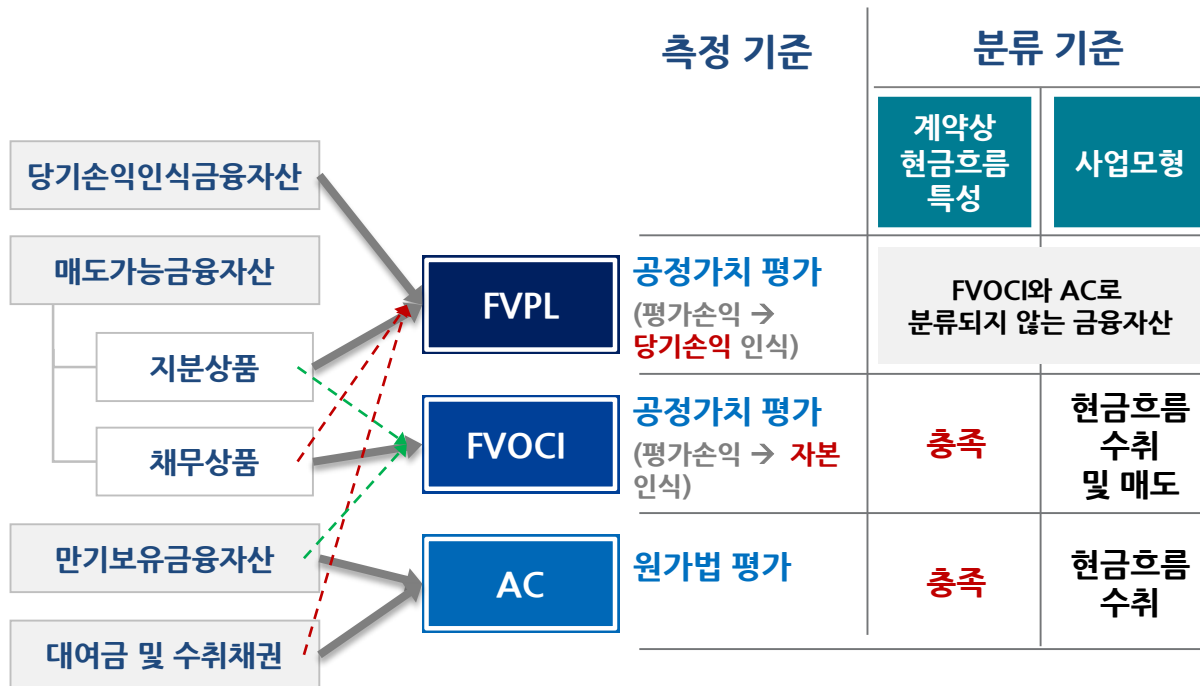
→ 2018년~2020년까지는 자산만 공정가치 평가하는 불합리 발생

2. 주요 변경 내용 :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현행 (IAS 39)

변경 (IFRS 9)

- 대부분
 - - - - - 회계기준에 따른 재분류(일부)
 - - - - - 회사의 선택적 재분류(일부)



주요 변경 사항

지분상품

- **원칙: FVPL 분류**
- 예외: FVOCI 선택 가능 (FVOCI Option)
단, 처분손익의 당기손익 인식 금지 (배당제외)

복합금융자산

- **FVPL 분류** (내재파생상품 미분리)

채무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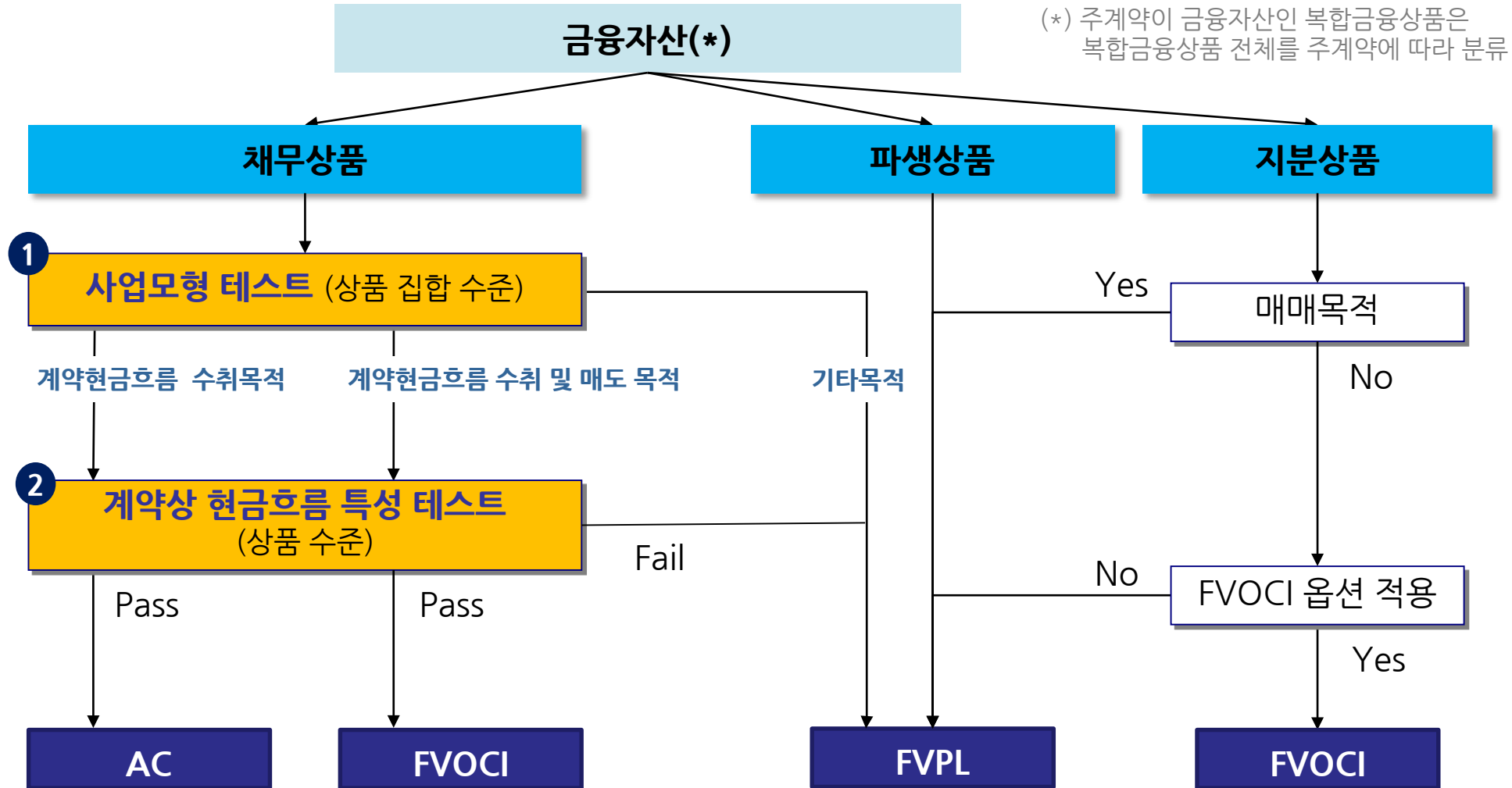
- **사업모형 평가**
보유 목적/운용 형태 평가 후 정의 필요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 (SPPI test)**
“단순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AC** 또는 **FVOCI** 분류 가능

- FVPL :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 FVOCI :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 AC : Amortized Cost
- SPPI :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2. 주요 변경 내용 :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 금융자산 분류 Flow chart



2. 주요 변경 내용 : 손상(대손충당금)

현행 (IAS 39)

변경 (IFRS 9)

개념

발생손실 Incurred Lo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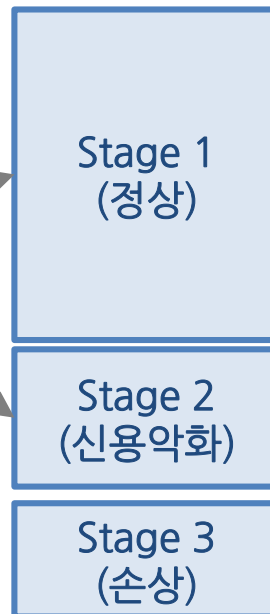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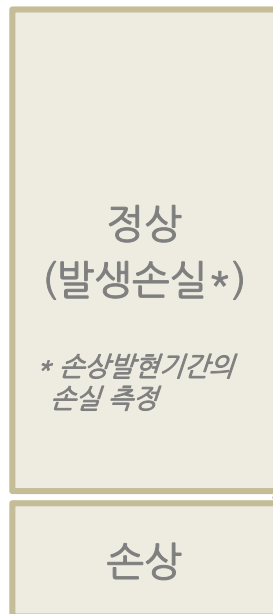
기대신용손실 Expected Credit Loss

범위

대출채권

AC(상각후원가자산) + FVOCI 채무증권

측정



안정적인 신용위험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대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부도(Default)여신 (현행 동일)

→ 대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조정

현재 경기상황 반영

미래 경기전망 반영 (Forward looking)

3. IFRS 9 특징 요약 (참고)

▣ 완전한 공정가치 회계를 위한 一步 前進 (One step forward)

| | | 최초측정 | 후속측정 | 가치 변동 (평가손익) | |
|---------------|--------------------------------|------|--------------------|--|--------|
| | | | | 신용위험 | 시장위험 등 |
| 원칙 ↓ 예외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FVPL) | FV | FV | P/L | P/L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FVOCI) | FV | FV | P/L | OCI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AC) | FV | AC (손상:12개월 EL) | P/L * 신용위험 유의적 변동시 Lifetime EL | N/A |
| | FVOCI Option 선택 지분상품 | FV | F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CI → 손상평가 없음 처분손익 P/L 재분류 금지 (배당 제외) | |

II. 보험사의 IFRS 9 도입 (IFRS 17과의 관계)

1. 보험사 및 연결 모회사의 IFRS 9 적용 방안

■ 보험사는 2021년 IFRS 9과 IFRS 17이 동시 도입될 예정임 (IFRS 17 도입시까지 IFRS 9 한시적 적용면제)

그러나, 연결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목적으로 IFRS 9 도입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대안 중 결정 필요



* 총부채 중 보험부채가 일정비율 이상인 회사만 가능

39 : IAS 39 “금융상품” (현행)

9 : IFRS 9 “금융상품” (개정)

4 : IFRS 4 “보험계약” (현행)

17 : IFRS 17 “보험계약” (개정)

2. 연결모회사의 IFRS 9 적용 : Overlay approach

■ Overlay approach 선택 시, 적용방법 및 공시사항

| 적용 방법 | 공시 사항 |
|---|--|
| <p>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FVPL의 공정가치 변동효과를 당기손익(P/L)이 아닌 자본(OCI)로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IAS 39에서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 자산으로 분류되었으나, IFRS 9에서 FVPL로 분류 변경 ■ IFRS 4의 적용범위(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계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정한 금융자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erlay Approach를 적용했다는 사실 및 보험계약과 관련 있는 금융자산 공시 ■ 손익변동성 조정을 한 해당 금융자산을 결정한 회사 정책 ■ 매기 손익변동성 조정의 총 금액에 대한 설명. 특히, 금융자산의 재지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erlay Approach 적용범위에 포함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 금액 - 금융자산이 Overlay Approach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되었을 금액 - Overlay Approach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 |

Ⅲ. 국내 보험사 투자금융상품 현황

1. 생명 보험사

□ 국내 생명보험사 투자상품 구성비율 (평균)

* 2016년 12월말 기준 (단위: %)

| | 구분 | 당기손익인식 증권 | 매도가능 증권 | 만기보유 증권 | 대출채권 | 합계 |
|----------|-----------|--------------|---------------|---------------|---------------|----------------|
| 유가 증권 | 주식 | 0.10% | 4.22% | 0.00% | - | 4.32% |
| | 채권 | 0.08% | 39.60% | 15.23% | - | 54.91% |
| | 수익증권 | 1.08% | 4.04% | 0.00% | - | 5.12% |
| | 외화유가증권 | 0.09% | 8.28% | 4.71% | - | 13.08% |
| | 기타유가증권 | 0.46% | 0.43% | 0.00% | - | 0.89% |
| | 소계 | 1.81% | 56.57% | 19.94% | - | 78.32% |
| 대출 채권 | 가계 | - | - | - | 13.27% | 13.27% |
| | 중소기업 | - | - | - | 5.19% | 5.19% |
| | 대기업 | - | - | - | 3.20% | 3.20% |
| | 공공 및 기타자금 | - | - | - | 0.02% | 0.02% |
| | 소계 | - | - | - | 21.68% | 21.68% |
| | 소계 | 1.81% | 56.57% | 19.94% | 21.68% | 100.00% |

(Data source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KPMG Analysis)

2. 손해 보험사

□ 국내 손해보험사 투자상품 구성비율 (평균)

* 2016년 12월말 기준 (단위: %)

| | 구분 | 당기손익인식 증권 | 매도가능 증권 | 만기보유 증권 | 대출채권 | 합계 |
|----------|-----------|--------------|---------------|--------------|---------------|----------------|
| 유가 증권 | 주식 | 0.04% | 2.76% | 0.00% | - | 2.80% |
| | 채권 | 0.39% | 35.22% | 4.20% | - | 39.81% |
| | 수익증권 | 2.17% | 8.61% | 0.00% | - | 10.78% |
| | 외화유가증권 | 0.26% | 12.06% | 1.10% | - | 13.42% |
| | 기타유가증권 | 0.73% | 1.39% | 0.00% | - | 2.12% |
| | 소계 | 3.59% | 60.04% | 5.30% | - | 68.93% |
| 대출 채권 | 가계 | - | - | - | 16.21% | 16.21% |
| | 중소기업 | - | - | - | 9.82% | 9.82% |
| | 대기업 | - | - | - | 5.04% | 5.04% |
| | 공공 및 기타자금 | - | - | - | 0.00% | 0.00% |
| | 소계 | - | - | - | 31.07% | 31.07% |
| | 소계 | 3.59% | 60.04% | 5.30% | 31.07% | 100.00% |

(Data source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KPMG Analysis)

IV. IFRS 9 이 보험사 자산운용에 미치는 영향

1. IFRS 9 상 금융상품 분류 예시

원칙

FVPL

공정가치 평가
→ 평가손익 당기손익 인식

| | |
|----------------------|-------------------|
| 주식 (상장/비상장) | 신종자본증권 (CoCo) |
| 수익증권/출자금 (פות가능금융상품) | 구조화채권 (DLS 등) |
| 중/후순위 PF대출 * | 복합금융상품 (CB, BW 등) |
| Equity (Subnote) | Zero callable * |

* SPPI test 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FVOCI 채무증권

공정가치 평가
→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인식
(단, 대손충당금 인식)

- FVPL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채무증권 (사업모형: 수취 및 매각모형)
- 대부분의 국공채/금융채/회사채 등

AC

원가법
→ 대손충당금 인식

- 일반적인 대출채권 (가계/부동산담보/기업 대출 등)
- 선순위 PF 대출 (충분한 자본 보유)
- FVPL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채무증권 (사업모형: 수취모형)

예외

FVOCI 지분증권

공정가치 평가 →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인식
* 처분손익 No recycling (배당금수익 제외)

- FVOCI Option 선택시 (사업상 관계에 따른 전략적 지분투자 등)

2. 금융상품 분류별 자산운용시 고려사항

FVPL

-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FVPL 분류** (FVOCI Option 미적용시)
 - ✓ 투자 위축 가능성 → 위험 관리 정교화 (주가 연계 리스크 감축)
 - ✓ 배당주 / 고배당전략 선호
- **현재 보유 중인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누적된 평가이익(OCI)**
 - ✓ '18.1.1 시점에 누적평가손익은 모두 새로운 취득원가로 변경됨
 - ✓ 당기 이익실현 전략 또는 매각시점 결정시 손익관리 측면 검토
- **재량적 투자 권한 강화** (discretionary investment mandate) → **아웃소싱 투자 감소**
- **신규 투자상품 발굴시 IFRS 9상 금융자산 분류 및 新 RBC(K-ICS) 영향 사전 분석**
-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체투자 → 손익변동성(P/L Volatility) 확대**
 - ✓ 투자상품 리스크 유형별 관리 강화 (민감도 분석 등)
 - ✓ PF대출 등에 대한 신용분석 강화
 - ✓ 공정가치 평가체계 고도화

FVOCI 채무증권

AC

FVOCI 지분증권

2. 금융상품 분류별 자산운용시 고려사항

FVPL

FVOCI 채무증권

AC

FVOCI 지분증권

- 2021년 IFRS 17 “보험계약” 적용시점에 분류 재검토
 - ✓ 사업모형 재정의
 - ✓ 지분증권 FVOCI 지정 취소
- IFRS 17 도입과 연계하여 Duration Gap 확대에 따른 ALM 관리
 - ✓ 장기채/해외채 투자 증가
 - ✓ IFRS 17 도입 前 단계적 포트폴리오 사전 조정
- PF대출^{SPPI test 통과} : FVOCI 채무증권 분류 검토 → 중도 매각 용이
- 해외투자: 신용등급 관리 / 환리스크 관리 및 헤지회계 확대
- 채무상품에 대한 대손충당금 인식 → 손익변동성(P/L Volatility) 확대
 - ✓ 보다 적극적인 신용분석 기능 강화 (Initial and ongoing)
 - ✓ 미래 손익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한 채권 선정단계의 중요성 (Bonds with good long-term credit health)
 - ✓ 매각시 현재 손실실현과 미래 손익변동성 확대간의 trade off 관계 고려

2. 금융상품 분류별 자산운용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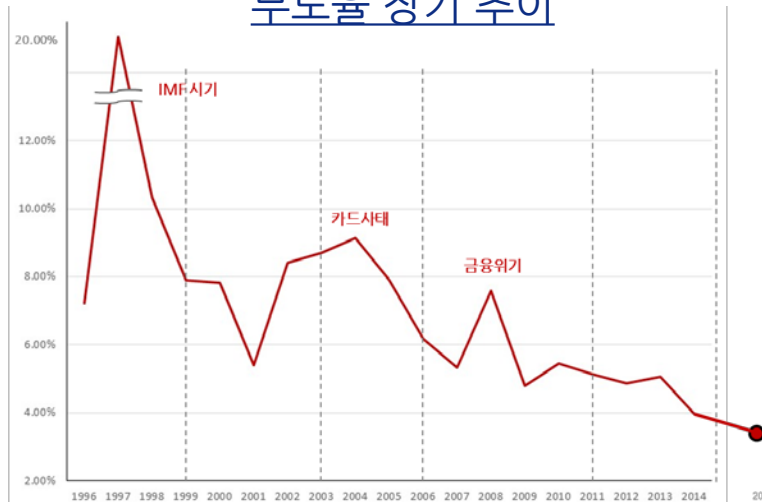
FVPL

FVOCI 채무증권

AC

- **자의적 계정재분류(FVOCI채무↔AC) 불가 → Tainting rule 삭제**
 - ✓ 현행 대비 AC분류 상품의 매각 유연성 증가 (신용위험 증가로 인한 매각 등)
 - ✓ 사업모형 정의 중요, 이익 관리 수단
- **최근 가장 낮은 수준의 대손율로 인해 IFRS 9 대손충당금 증가효과 과소평가 가능성 높음 (현행 대비) → IFRS 9 대손충당금 경기 민감도 높음**

부도율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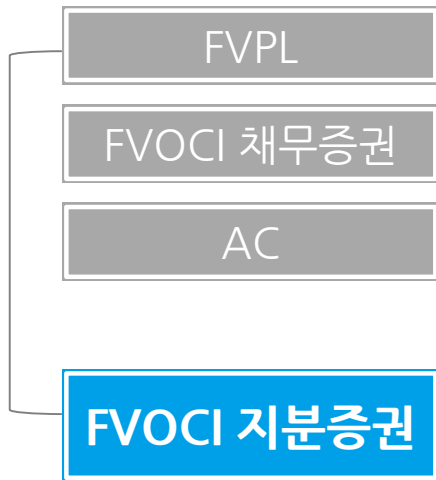


향후 신용위험 증가(부도율 상승)시 대비 필요 → 대손상각비 급증

- ✓ 저신용등급 고객군 (연체, 등급하락)
- ✓ 부동산경기 하락 (PD% ↑, LGD ↑)
- ✓ Stage 2 Lifetime EL 인식
- ✓ Forward looking 조정 (PD% ↑)
- ✓ 은행권 대손율 관계 (선행 vs 후행)

FVOCI 지분증권

2. 금융상품 분류별 자산운용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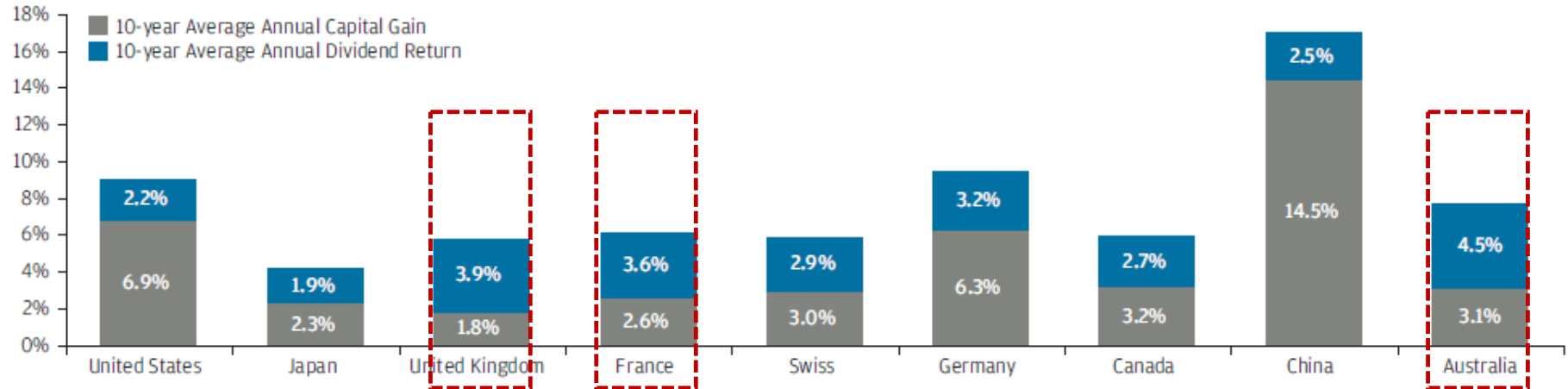


IFRS 9의 원래 취지는 전략적 지분투자^{Strategic investment}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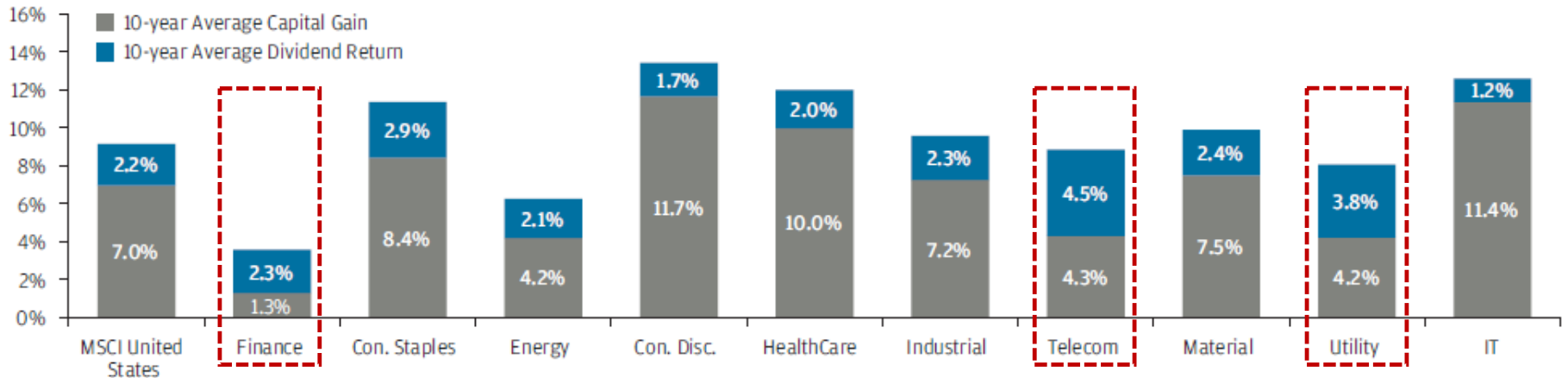
- 그러나, 반드시 전략적 지분투자에만 적용할 필요 없음
- 영구채 형태의 코코본드 적용 고려 (Contingent Convertible Bond)
- (장기)배당주 투자 적용 고려
 - ✓ 배당금수익은 손익 인식 가능
 - ✓ 주가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조정 → 손익변동성 관리 용이

2. 금융상품 분류별 자산운용시 고려사항

HISTORICAL DIVIDEND RETURN VS. CAPITAL GAIN ACROSS SELECTED EQUITY MARKETS



MSCI US - HISTORICAL DIVIDEND RETURN VS. CAPITAL GAIN ACROSS SECTORS



(Data source : Bloomberg, MSCI, J.P. Morgan Asset Management)



cutting through complexity

Q&A

kpmg.com/kr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감사합니다.

© 2017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